

# Winter Solitude

김종학 '설경'

12.10(thu), 2015 - 2.14(sun), 2016

Johyun Gallery



“설악산에 살기 시작해 사십대 이후부터 계속 그렸다.  
설악에서는 문만 열어도 천지가 그림의 소재이고 영감의 원천이었다.  
겨울의 내리는 눈은 정말 아름다웠고 눈 내린 풍경은 고요하고 적막했다. 그렇게 겨울이 나에게 다가왔고  
겨울이 오면 겨울을 그리고 있다.”

“죽는 순간까지 그림을 그릴거다. 그렇게 죽는게 화가로서는 최고의 죽음이라 생각한다.  
난 그림그리는 것 외에는 다른것은 잘하는게 아무것도 없다.”



2001, Oil on canvas, 80.3 x 130.3 cm (사진제공:조현화랑)

□ 관람안내 / 조현화랑 \_부산

전 시 명 : 김종학 설경 (Winter Solitude) 展

전시기간 : 2015년 12월 10일 (목) ~ 2016년 2월 14 일 (일)

전시장소 : [조현화랑]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 65번길 171

개관시간 : 화~일요일 11:00~19:00 (매주 월요일휴관)

전시담당 : 주민영(010-2708-5161) / 윤보람(010-2025-4737)

전시문의 : [조현화랑] T. 051.747.8853 / F. 051.742.8852 / E. info@johyungallery.com



□ 작가 소개

1937신의주 생. 서울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 화업과 인생에 대한 실의에서 서울을 떠나 속초로 간것이 1979년이었다. 첫 개인전을 신문화관 화랑(1964)에서 열었고, 같은 해 제5회 파리 비엔날레에 출품했다.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 5회 국제판화비엔날레(1967)에 장려상 수상, 같은 해 무라마쓰 화랑(도쿄), 시노 Shino(로스엔젤레스)화랑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국내에서는 국전추천작가(1975-77)로 선정, 뉴욕 프랫 그래픽 센터에서 연수(1977-79)했다. 귀국 후 설악동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구상계열의 작품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설악작품으로 원화랑(1985)에서의 개인전을 시작, 국내 외 주요 미술관,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지난 2011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의 대규모 회고전으로 다시 한번 더 큰 주목을 받았으며, 오래 수집에 열중했던 조선시대 목기(木器)를 국립중앙박물관에 일괄 기증하기도 했다. 그 외 작품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호암미술관 등에 국내 주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 전시소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지난 화업 50년의 세월중 처음으로 선보이는 김종학의 설경전시는 마치 수백년이 넘은 명화를 발견한 경이로움과 노작가의 인생을 눈앞에서 마주한 듯한 숙연함을 느끼게 한다.

조현화랑은 2015년 연말을 맞이하여 김종학 작가의 ‘설경(winter solitude)’ 을 통해 한국 현대 미술의 중요한 흐름을 다시 짚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1년 과천 국립 현대 미술관 회고전 이후 시도되었던 김종학 작가의 다시보기 프로젝트에 이어 그 정점을 보여줄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것이다.

김종학 작가의 컬렉션중 하나인 농기구를 설치물로 재해석 했던 ‘희수(喜壽)-진정(眞情)’展 (2013)을 비롯하여 딸에게 썼던 편지를 재구성하여 보여주었던 ‘다정(多情)’展(2012), 김종학 작가의 안목으로 선택되어진 보자기展와 나무기러기展(2013)는 현대 미술의 감동을 뛰어넘는 높은 예술적 경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난6월 남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김종학 작가의 ‘창작의 열쇠’展(2015)를 통해 예술을 향한 강한 사랑과 집착은 관객들에게 꽃의 화가가 아닌 비로소 김종학을 다시 볼수 있게 해준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이번에 보여지는 김종학화백의 작품은 지금까지 보여준적없는 미발표된 작품과 이번 전시를 위해 그려진 신작중에 엄선하여 오롯이 ‘설경’ 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겨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양하다. 어떤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자 생생한 삶의 터전일것이고 동면을 하는 동물들에게는 깊고 조용한 안식의 시간이다. 또한 겨울의 추위는 봄에 꽃을 피울 식물에게 이겨야할 극복의 대상이자 튼튼하게 꽃봉우리를 피우게 하는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겨울은 춥고 어둡고 길다. 그런 겨울을 작가는 가장 아름다운 절기라고 했다. 화장하지 않은 민낯이며 송고한 자연의 골격이라고 했다. 설경이 가진 침묵은 마치 성당의 고요함과 같다고 했다. 요동치는 내면을 설악의 하얀눈이 덮고 있는것이다. 구상작가로 불린 50년의 세월이지만 김종학화백의 설경은 서사와 대조되는 ‘순수(純粹)의 예술’ 이며 스토리를 감춘 ‘시(詩)의 예술’ 과 다름이 없다. 그렇기에 그의 인생에서 고독한 겨울의 절기는 고혹적으로 보이고 고요한 분위기는 엄숙함을 자아낸다. 설경은 곧 여든이 되는 작가의 인생의 시기와 비슷하게 비춰진다. 감정 기복에 영향을 받지않고 담담하게 그려나가는 그의 필력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춤을추듯 그려나간 그의 필력 보다 천천히 눈위를 걸어가는 듯 떨리는 필력은 더 농후하고 질다.

이번 겨울 전시를 위해 조현화랑에서는 올해 봄부터 아카이빙(archiving)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다. 총 40여점의 작품이 메인전시장에 전시되며, 동시에 인터뷰 영상이 곳곳에 설치 된다. 그리고 작가에 대해 입체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스튜디오 현장까지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총 세가지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시장에 전시될40여점의 작품은 가로 2미터가 넘는 대형작품부터 소반에 그려진 소품까지 각 작품마다 그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다양한 겨울풍경을 두루 선보인다. 먼저 설악의 바위산이 장엄하게 표현된 두터운 마티에르는 붓으로 그려나간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직접 모래를 안료와 섞어 무심하게 바른 행위는 물감으로 표현될수 없는 질감에 대한 작가의 끊임없는 도전이 엿보이다. 모든 추상의 모태인 양 자연의 선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펼쳐나간

선들은 오히려 설악산의 민낯을 보듯 당당해 보인다. 이는 김종학 화백의 설경이 동양화와 자주 언급되는 부분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 보여진 그대로를 그리는것이 아니라 빼대만 남기고 생략하는것이다. 비움이 채움을 대신한다.

매우 속도감있게 그려나간 설경작품은 요동치는 내면이 그대로 반영되는 듯하다. 관객의 눈이 따라갈수 없을 정도로 붓의 속도가 빠르고 형태가 해체되어 있으며 의지가 배제되어있다. 설경이라는 주제를 벗어난다면 이는 단지 행위와 리듬만이 남아있는것이다. 추상의 몸짓을 정리하는것은 시공간을 일깨워주는 유유자적인 새들의 날개짓 뿐이다. 곧 여든을 앞둔 김종학 화백은 세월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듯 자연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진다고 했다. 죽어가는 풀잎도, 눈이 덮혀 기울어진 모습도, 돌도, 냇가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 있다고 했다. 그렇게 설경은 작가의 세월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번 전시는 준비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을 프로젝터와 모니터로 곳곳에 설치된다. 일주일간 작가와 함께 동행하면서, 작업하는 과정 외에도 일상적인 대화들을 고스란히 담았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색을 고르는 모습, 물을 버리거나 옮기는 모습, 혹은 밥을 먹거나 산책하는 모습등 김종학 화백의 하루하루를 담았다. 곧 여든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 종일 화실에 나와 붓을들고 고민하는 모습을 엿 볼수 있다. 감정기복의 고저(高低)에 의지하며 작업해왔던 김종학 화백은 설경을 준비하면서 마치 겨울이 가지고 있는 그 고요함속으로 들어가 천천히 꾸준히 끊임없이 작업했다. 마치 그림을 처음 시작했던 젊은 시절 처럼 자신의 작품 앞에서 고민하기도 했고 때로는 손이가는대로 붓을 들기도 했다. 동영상 작업에 앞서 김종학 작가를 ‘꽃의 화가’ 라는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입체적으로 보여줄수 있도록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이번 전시에 공개한다. 그곳에는 작가가 직접 작업한 흔적도 남겨 있지만 유아기때부터 학창시절, 동시대의 작가들과 함께했던 흔적들까지 사진으로 보여준다. 이 기회를 통해 작가의 삶이 어떻게 작업과 연관지을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꽃의 화가’ 김종학화백의 이번 설경전시에는 ‘꽃’ 이 등장하지 않는다. 화려한 색채도 없다. 붉게 타오르는 꽃들이 잉태되기 전 몇천년 잠들어 있는 눈덮힌 설악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오로지 자신의 몸만 드러내는 김종학의 설경전시를 통해 관객이 작품앞에서 귀를 기울이길 기대한다. 들어보래! 고요함 속에서도 무던히도 내리는 눈의 소리를.

□작가와의 인터뷰

**Q. 이번 전시의 주제는 ‘겨울’ 이다. 김종학 작가에게 ‘겨울’ 은 어떤 의미인가?**

- 자연은 나에게 벗이자, 스승이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그 맛이 다르다. 그중에 겨울은 모든걸 다 떨쳐내고 고요하고 엄숙한 계절이다. 자연의 뼈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겨울 풍경에서 골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민낯 같은 당당함이 엿보인다. 겨울이 오면 모든 자연은 조용히 휴식을 취한다. 사물들은 약속이나 한 듯 죽은 척을 하지만 실은 겨울의 고요함 속에서 봄의 부활을 위해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겨울에 생기를 잃는 자연의 모습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말라버린 꽃들도, 앙상해진 나뭇가지도, 얼어붙은 포포도, 눈이 녹기 시작해 새생명이 막 태어나기 시작하는 겨울 끝자락의 모습도 아름답다.

**Q. 설경은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했나?**

- 설악산에 살기 시작해 사십대 이후부터 계속 그렸다. 설악에서는 문만 열어도 천지가 그림의 소재이고 영감의 원천이었다. 겨울의 내리는 눈은 정말 아름다웠고 눈 내린 풍경은 고요하고 적막했다. 눈이 내리고 난 후 살짝 녹은 눈과 어우러진 자연의 모습은 그것대로 또 다른 매력이었다. 눈이 덮여 기울어진 모습을 보는것도 지루할 틈이 없다. 그렇게 겨울이 나한테 다가왔고 겨울이 오면 겨울을 그리고 있다.

**Q. 이번 전시가 화업 50년의 시간동안 처음으로 열리는 설경 전시라고 들었다.**

- 난 사계를 모두 그리는 작가다. 그런데 꽃의 작가로 인기가 있다보니 겨울 그림은 늘 그려왔지만 그동안 거의 전시하지 못했다. 겨울만 전시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갤러리 입장에서도 겨울그림만 가지고 전시하는 것은 큰 도전일 것이다.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 겨울 그림의 진수를 안다.

**Q. 어느 인터뷰에서 ‘겨울을 더 잘그려’ 라고 말한 부분이 기억이 난다.**

- 나는 그림을 그릴 때 기운생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는 굉장히 오랜시간 숨을 고르고 고민을 하지만 막상 붓을 들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작업하는 편이다. 이렇게 해야 형용하고자 하는 대상을 보다 실감나게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많은 색채가 사라진다. 봄, 여름, 가을 그림의 경우 많은 색채를 사용하기 때문에 색채에 대한 고민을 많이해 완성까지 오래 걸리는 반면, 겨울은 흑백의 단순한 색상을 사용해 ‘선’ 을 주된 요소로 등장시키기 때문에 빠르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하루 종일 그린 그림보다 다섯 시간 동안 집중해서 그려낸 그림이 훨씬 실감나게 다가오기도 한다.

**Q. 김종학 화백의 설경은 동양화와 비교해 자주 언급된다.**

- 서양화 기법으로 동양화를 그린다고 친구들이 많이 이야기한다. 나는 동양화를 정말 좋아한다. 대학교에서 동양화 수업을 받았던 것이 졸업한 후에도 큰 도움을 줬다. 겨울에 눈이 쌓이면 자연의 골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무채색과 선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겨울 풍경이 펼쳐진다.동양에서는 색채가 없을수록 고결하고 엄숙하다고 생각하고 선을 중요시하는데, 나 역시 설경을 그릴 때 더 신경쓰는 부분이 색채보다는 ‘선’ 이다. 그림의 80% 이상을 선으로 표현한다. 그러다 보니 중국예술의 육법 중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기운생동법’ 이 나의 겨울 그림에서 잘 느껴져 마치 동양화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 것 같다.

**Q. 설경은 하경과 주제도 다르지만 표현방법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 설경을 그릴때는 유화를 더 선호한다. 겨울 그림은 선을 뚜렷이 표현해야 하는데, 그럴때는 마티에르가 선과 양감을 두껍게 그리는데 유리하다. 두꺼운 마티에르는 양감이 강조되고, 붓의 흔적, 팔렛, 나이프의 효과도 용이하게 표현된다. 바위산인 설악의 장엄함을 표현하는것이기에는 붓으로 그려내기 보다는 나이프로

거칠고 투박하게 물감을 올리거나 불린 종이와 모래를 안료와 섞어 보다 강한 마티에르로 표현한다. 그래서 나는 마티에르를 좋아한다. 재료의 투박하고 순수한 맛이 바위의 장엄하고 겨울의 엄숙함을 표현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Q.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 세잔느가 말했듯 자연은 백과사전이다. 자연의 모든 부분이 내 영감의 원천이다. 피카소는 “화가는 여자이고, 자연은 남자” 라고 했다. “자연이 잉태해 주어야 화가는 새 생명인 작품을 만든다” 라고 했다. 자연은 굳이 내가 가서 말을 걸지 않아도 항상 열려 있다. 그런 자연에 안겨 많이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같은 계절의 같은 장소에서 만난 자연일지라도 지금과 나중의 모습이 또 다르다. 마흔에 보았던 설악과 여든을 앞둔 지금의 설악은 다르게 보인다. 사람들이 모두 다르게 생겼듯이 같은 종의 꽃도 열심히 쳐다보면 다 다르다. 그래서 자연의 품에 안겨 가까이에서 잘 들여다 보아야 한다.

**Q. 많은 양의 드로잉이나 스케치를 보고 놀랐다. 이러한 스케치가 김종학 화백의 작업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가?**

- 속도감있게 그리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려는 대상을 많이 바라보아야하고, 사진도 찍고 스케치도 많이 해야한다. 그렇게 눈의 훈련을 많이 한다. 그리고는 자연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내가 만난 자연의 핵심을 뽑아서 그린다. 그 순간의 감성을 잡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스케치가 캔버스 작업보다 재밌는 것이 많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캔버스 작업을 할때는 스케치를 참고할 뿐 그대로 따라하진 않는다. 스케치는 스케치대로, 그림은 그림대로.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순간의 자유로움을 즐긴다. 김종학이라는 화가의 눈을 통해 자연은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을 그린 나의 그림을 추상적인 구상이라고 한다.

**Q.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인가?**

- 추사 김정희, 이인상, 겸재를 좋아한다. 추사는 선이 좋다. 구성력과 선의 힘찬 모습이 감동적이다. 그의 굴곡많은 생애처럼 서체 또한 매우 다양하다. 유명한 추사체는 제주 귀향시절 완성되었다. 이인상의 그림은 자연에서 핵심만 뽑아서 갈피법을 사용하여 먹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 겸재는 뿔 것은 빼버리고 붙일 것은 붙여 그렸다. 겸재의 그림 중 산봉우리가 잘려나간 것이 있다. 그림의 균형잡힌 구성을 위하여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Q. 김종학 화백의 컬렉션 중 조선목가구의 조형미는 높게 평가 받는다. 특히 겨울그림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어 보인다.**

- 심플하고 비례감이 잘 맞다는 점과 겨울그림이 단순하고 구조적이라는 면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색채를 배제하고 선을 중요시하며 고요한 정신상태를 드러내고자 했던 나의 겨울그림은 정신성을 강조하고 절제미가 돋보이는 조선목가구의 특징과 연결선 상에 있는 것 같다.

**Q. 곧 여든이다. 혼자 그림을 그리는데 힘들진 않은가.**

- 힘들다고 생각하면 화가가 아니다. 내 나이가 79세인데, 난 나이를 느끼지 않고 50대 정도로 내 나이를 착각하며 지낸다.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 일요일 하루만 쉬고 매일 5시간 이상 꾸준히 그림을 그린다. 그러기 위해서 요즘은 명상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한다. 최근에는 대작을 그렸다. 소품을 그리는 것보다 대작을 그리는 것이 재밌다. 붓을 휘두르고 싶다. 휘두르는 만큼 그 만한 감동을 준다. 예전처럼 10m를 늘어놓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나는 그럴수 있다고 믿고 있다. 죽는 순간까지 그림을 그릴거다. 그렇게 죽는게 화가로서는 최고의 죽음이라 생각한다. 다시 태어나도 난 화가가 될것이다. 화가가 아니었던 내 모습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난 그림그리는 것 외에는 다른것은 잘하는게 아무것도 없다.

**Q. 작업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때 어떻게 하는가.**

- 폭포를 보면 늘 기운차게 흐르지 않는다. 위에서 물이 고일때까지는 흐름이 없다가 물이 차고 넘치면 세차게 흘러 바다까지 간다. 화가도 늘 잘 그릴순 없다. 고일때도 있고 흐를때도 있다. 물론 그림이 안될 때는 화도 난다. 그러나 화가 나면 오히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 나이지만 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행복하다. 많이 돌아다니기 힘든 나이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좋다.

**Q. 이 시대의 젊은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 붓을 놓지 말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항상 그려야 한다. 그림을 그리는 중에 드는 많은 생각과 기쁨, 슬픔, 고통 또한 잘 견뎌야한다. 여전히 나도 작품앞에서 자신없을때가 있다. 오늘은 자신있다가도 다음 날 다시 캔버스 앞에가면 두렵기도하다. 이것을 즐겨야 한다. 작가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보다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 해서 뭐하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도 '재미있어서 한다' 라고 하면된다. 무용(無用)속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 얽매이지 않는 것, 대답해줄 필요가 있다.

**Q. 앞으로 시도하고 싶은 작업이 있는가.**

- 나이에 따라 변동이 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보고 싶다. 인물화를 즐겨 그렸다. 난 사람도 꽃이라 생각한다. 같은 얼굴도 보면 볼수록 새롭고, 모든 표정들이 재미있다. 계속해서 인물을 그리고 싶다. 조각도 해보고 싶다. 민들레가 저서 날아가기 전의 그 모습을 거대한 조각으로 표현 해보고 싶다. 내 나이가 되니 자연이 늘 새롭게 보인다. 보지 못한 꽃이 아직도 너무 많다.

**Q. 이번 전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 겨울은 인생의 노년기에 빗대어진다. 나도 인생의 계절 중 겨울에 들어섰다. 겨울은 끝이 아니라 다음에 돌아올 봄을 준비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계절이다. 나 역시 이번 전시를 통해 지금까지의 그림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작업에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길 바란다.

\* 전시 작품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사진제공:조현화랑>을 함께 표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5

Oil on canvas

181.8 x 290.9 cm

(사진제공:조현화랑)



2015

Oil on canvas

162.1 x 259.1 cm

(사진제공:조현화랑)



2015  
Acrylic on canvas  
110 x 259 cm  
(사진제공:조현화랑)



2013

Oil on canvas

130 x 161.5 cm

(사진제공:조현화랑)



2015  
Acrylic on canvas  
91 x 116.8 cm  
(사진제공:조현화랑)



2001

Oil on canvas

80,3 x 130,3 cm

(사진제공:조현화랑)

□작가약력

1937 평안북도 신의주 출생  
 196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1968-70 동경미술대학 서양화 판화과 연수  
 1977 프랫 대학원 그래픽 센터 연수

개인전

2015 설경전, 조현화랑, 부산  
 ‘창작의 열쇠’ 전, 서울시립 남서울생활미술관, 서울  
 2013 ‘바라보다-목안,보자기’ 전, 조현화랑, 부산  
 ‘진정(眞情)-김중학 회수’ 전, 갤러리 현대, 서울  
 2012 ‘김중학의 다정’ , 갤러리 현대, 서울  
 2011 회고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8 예화랑, 서울  
 2007 조현화랑, 부산  
 2006 가나아트센터, 서울  
 2004 갤러리현대, 서울  
 2003 예화랑, 서울  
 2001 박여숙화랑, 서울  
 1999 조현화랑, 부산  
 1998 갤러리현대, 서울  
 1994 삼풍갤러리-박여숙화랑, 서울  
 1992 박여숙화랑, 서울  
 예화랑, 서울  
 조현화랑, 부산  
 1990 선화랑, 서울  
 1988 박여숙화랑, 서울  
 1987 선화랑, 서울  
 1985 원화랑, 서울  
 1977 갤러리현대, 서울  
 1976 시노갤러리, 로스엔젤레스  
 1974 갤러리현대, 서울  
 무라마쯔화랑, 동경  
 시노갤러리, 로스엔젤레스  
 1970 무라마쯔화랑, 동경  
 1964 신문회관화랑, 서울

단체전

2014 ‘경계의 회화’ 전, 금호미술관, 서울  
 ‘Flower, Flower, Flower’ 전, 갤러리이배, 부산  
 2013 한국 현대미술 특별전,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컬러풀 코리아’ 전, 박여숙화랑, 서울  
 2011 한국 미술 거장전,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2010 2010 한국 현대미술의 중심에서, 갤러리현대, 서울  
 ‘김중학, 윤광조 도화’ 전

- 2009 아름다운 세상을 부탁해,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서울
- 2008 Good Morning, Mr. Nam June PAIK, 런던한국문화원, 런던
- 2005 2005 서울미술대전-회화,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Modern & Contemporary Masters" 전, 갤러리현대, 서울
- 2003 한국현대미술 조명: 예화랑 개관 25주년 기념전시, 예화랑, 서울
- 1999 3인전: 곽훈, 김웅, 김종학, 예화랑, 서울
- 1993 Vision in Between, 뉴욕; 도쿄, 타이페이, 서울
- 1990 4인전, 박여숙화랑, 서울
- 1989 서울시 초대전
- 1988 서울 올림픽 한국 현대 미술전  
서울시 초대전
- 1986 2인전, 예화랑, 서울
- 1984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
- 1983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
- 1982 유고 판화 비엔날레
- 1981 문예진흥원 판화초대전, 미술회관, 서울  
오늘의 작가전, 미술회관, 서울  
한국 미술 81년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국전(30회) 추천작가
- 1980 한국현대 판화 협회전
- 1979 한국현대판화 10인전, ADI갤러리, 샌프란시스코
- 1978 미동부 한인작가전, 아시아문화센터, 뉴욕
- 1977 국전(26회) 추천작가  
중국 역사박물관 한국대표전, 대만
- 1976 국전(25회) 추천작가  
현대국제판화전, 한국출판문화회관 화랑, 서울
- 1975 국전(24회) 추천작가
- 1973 제12회 상파울로비엔날레  
현대미술 73년전, 명동화랑, 서울  
서울 13인 초대전, 시그넬화랑, 일본
- 1972 제2회 서울국제판화비엔날레, 동아일보사, 서울
- 1969 제1회 국제동판화비엔날레, 부에노스아이레스
- 1968 한국현대회화전, 동경국립근대미술관, 일본  
한국현대판화가협회 창립전, 신세계화랑, 서울
- 1967 제12회 현대작가초대전  
제9회 국제동경비엔날레, 동경
- 1966 동경국제판화비엔날레, 동경
- 1965 제4회 파리비엔날레  
한국현대서양화 10인전, 중앙일보사, 서울
- 1964 한국청년작가전, Lambert화랑, 파리  
제2회 악뫼엘전, 경복궁미술관, 서울
- 1963 판화 5인전
- 1962 악뫼엘 창립전, 중앙공보관 화랑, 서울
- 1960 제1회 60년 미술가협회전, 덕수궁 담벽, 서울